

# 등교에 떠는 학부모… “원격수업 장기화 대책 논의해야”

## 개학 vs 연기

교육부 “20일 예정 고3 등교개학  
추가 연기는 검토하지 않을 것”

이태원 클럽發 2차·3차 감염 발생  
등교 연기 국민청원 21만명 돌파

교육부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고3 등교 개학과 관련해 입시 일정 등을 이유로 ‘추가 연기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감염 여파가 학원가를 덮치면서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거나 그 일대를 방문한 교직원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등교 이후 전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태원 클럽에서 촉발한 집단감염은 인천의 한 학원과 과외를 통해 중·고교 학생들의 2차 감염이 확인됐다. 초·중·고·고교 학생들의 2차 감염자도 발생한 상황이다. 예정대로 지난 13일부터 고3 등교 수업이 이뤄졌을 경우, 코로나 확진 학생들에 의한 학교 내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의미다.

◆ 교육부 “고3 20일 등교” 강행 의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24일 올라온 ‘등교 개학 시기를 미뤄달라’는 청원은 17일 오전 동의 수 21만8천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여론은 ‘서늘’

20일로 예정된 고3 등교 일정에 교육 당국 의지는 확고한 상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17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진 학생들의 등교 시기에 대해 “예정대로 할 것”이라며 “고3 학생들은 입시 문제도 있어 20일에 학교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대로라면 20일 고3 등교를 시작으로 ▲27일 고2·중3·초1~2·유치원생 ▲6월 3일 고1·중2·초3~4학년 ▲6월 8일 중1과 초5~6학년이 등교한다.

교육부의 강행 의지에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학교 일선의 여론은 서늘하다.

고3 등교를 또 연기해야 한다는 여론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인천 학원강사로 인해 코로나19가 학원가에 퍼진 이후에 본격화됐다.

지난 2~3일 서울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인천 학원강사 A씨가 초기 역학조사 때 ‘무직’이라고 속이면서 불거진 ‘연쇄’ 감염 상황이 심각한 데다가 이태원 클럽을 찾은 서울지역 고3 학생 사례도 나와 학부모 불안감을 키웠다. 특히 외국인인 자주 가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특성상 원어민 강사가 있는 초·중·고교나 학원을 보내는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는 상황이다.

매주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 방역당국 “이태원發 코로나 사태, 폭발적인 감염은 없어”

6일 이후 확진자 하루 평균 20명대  
2차, 3차 감염사례 모니터링·자가격리

방역당국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은 대구 신천지 사례 만큼 폭발적인 감염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고등학생에 이어 초등학생까지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방역당국이 오는 20일 고등학교 3학년생의 등교 개학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 이후 이제까지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평균 25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폭발적인 감염 없다”

방역당국이 학부모들의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등교 개학을 감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폭발적인 감염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17일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명 발생했다. 전체 신규 확진자는 13명 늘어나며, 이를 연속 10명대에 머물렀다. 이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가운데 1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중 지역발생자는 6명이다. 이제까지 클럽 집단발생 확진자는 168명 발생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는 이태원 클럽 발 확진자 처음 발생한 지난 6일 이후 이제까지 하루 평균 2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클럽 방문자의 잠복기가 지나가고 있다며 신천지와 같은 폭발적인 대규모 유행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태원 클럽 관련된 발병

은 최근에는 클럽을 직접 다녀오신 분들은 잠복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다”며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신천지 교회 같이 아주 폭발적인 그런 대규모의 유행으로 번지지는 않았다는 정도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집단감염이 벌어진 이태원 클럽 방문자 대부분이 이미 코로나19 검사를 마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한주 더 지켜봐

다만, 주점, 노래방, 학원 등에서 확

진자 접촉으로 인한 전파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경계는 늦추지 않은 상태다. 방역당국은 오는 한주 정도가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제까지 발생한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168명 중 절반 가까운 79명이 클럽 방문자의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다. 2차, 3차는 물론, 확진자로 부터 3번의 경로를 거쳐 이루어진 4차 전파자도 발생하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

정 본부장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4차 전파가 진행된 경우는 2명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제 클럽을 다녀온 확진자들이 집이나 가정, 다중이용시설에서 노출돼서 생기는 2차, 3차, 4차 감염자들의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2차적인 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 자가격리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은 좀 더 유행, 추가적인 발병에 대해 지켜봐야 한다”며 “이번 주, 오는 한 주 정도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내다봤다.

/이세경 기자 selee@

14일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MBC 토론 방송에 출연해 “교육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등교 수업이 우려된다”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9월 학기제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9월 신학기제는 말 그대로 초·중·고와 대학교의 새 학기를 9월부터 시작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9월이 아닌 때 개학하는 나라는 ▲한국(3월 신학기제) ▲일본(4월 신학기제) ▲호주(4월 신학기제) 등 3개국에 그친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조희연 서울교육감 역시 9월 학기제 논의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주말 동안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등교 수업 연기 결정을) 어렵게 하는 건 대입 일정인데, 수능을 한 달가량 미루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교육감의 이날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는 교육부에 등교 수업 추가 연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17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3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7명은 해외 유입 사례, 6명은 지역 사회 발생으로, 서울에서 4명, 대구와 대전에서 각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유로지역 국가 부채 심각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실물경기 위축을 겪고 있는 유로지역에서 경제적 리스크가 다시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로지역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남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정부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재정위기와 유사한 위기가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세입 감소, 정부지출 증가로 유로지역 국가들의 기초재정수지 적자가 대폭 증가하고 정부부채 비율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유로지역의 기초재정수지 비율은 지난해 0.9%에서 올해 -7.1%, 정부부채 비율은 86.4%에서 102.0%로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기초재정수지 비율과 정부부채 비율을 표준화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달비용, 부도위험, 시장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단기간 내에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남유럽 국가의 경우 부도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신용등급이 투자등급 하한에 근접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의 경우 부정적인 등급 전망을 감안할 때 향후 국제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희주 기자 hj89@

## 대기업 3분의 1 “코로나 6개월 이상 장기화시 구조조정 불가피”

### 전경련 기업 구조조정 현황 설문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대기업까지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

연구원은 지난달 13~24일간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300인 이상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120곳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현황’을 설문해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주 이내 휴업을 고려

한다는 응답이 48.4%나 됐다. 2주~1개월도 12.9%에 달했다. 1~2개월도 19.4%, 2~3개월도 12.9% 있었다. 4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 곳은 6.5%에 불과했다.

전체 기업 중 3분의 1 수준인 32.5%

는 6개월 이내에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2~4개월이 16.7%, 4~6개월이 9.2%였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곳은 19.4% 밖에 없었다. 휴업시간 또는 휴직기간 요건 미달 기업이 52%였고, 매출 감소 등 사유 불인정(20%)이나 까다로운 신청 절차와 서류 구비(8%)도 적지 않았다.

/김재용 기자 juk@